어린이 포교 일선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과 어린이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 연합회가 창립된 지도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 었습니다. 특히 신심있고 열정적인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 낸 공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 했듯이, 어린이포교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여는 대불사입니다. 오늘 연수회는 바로 그 원력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묘목은 정성으로 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은 불교 미래를 밝히고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50차 연수회를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어린이 포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스님과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